

朝鮮純祖戊子年
演慶堂進爵禮再現行事

2007년 6월 11일 (월) 창덕궁 연경당 본채

1회 11:00~13:00 2회 15:00~17:00

주최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부설 세계민족무용연구소, 서울국제문화교류회

후원 :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 국립국악원, 그레타리 한복연구소,

(사)궁중음식연구원, 한국정가단



축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황지우

짙어가는 여름, 작년에 이어 궁중정재의 전통과 고전문화에 대한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조선 순조 무자년 연경당 진작례 재현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본 재현 행사는 조선 최초의 문화 기획자였던 효명세자와 궁중 정재의 전모를 재 발견하는 의미있는 행사입니다. 따라서 <진작의궤>의 고증과 복원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소중한 우리의 궁중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우리의 문화적 역량을 되살리는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중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고증과 현대적 이해를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문화관광부 김종민 장관님과 문화재청 유홍준 청장님 이하 창덕궁 관리소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본교 무용원 부설 세계민족무용연구소의 허영일 소장님과 무용원, 전통예술원, 연극원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행사를 계기로 궁중 문화의 새로운 현대적 해석과 의미를 찾는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참여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축사



세계민족무용연구소 소장 허영일

만물이 푸르고 생기가 가득한 6월, 녹음이 짙어가는 창덕궁 연경당에서 작년에 이어 다시금 순조 무자년에 행해진 진작례 복원 재현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연경당에서 처음 진행되었던 재현 의례는 오랜 기간의 의궤연구와 고증을 위한 노력이 눈앞에 실현되어 나타나는 순간이었고, 그 때의 감동과 보람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궁중무용이 살아온 역사를 되찾고, 당시 살아 숨쉬던 그 공간에서 실현되는 것을 얼마나 고대해왔는지 모릅니다. 그 날은 창덕궁의 연경당도 과거 효명세자의 효와 예로 활기찼던 진작례를 떠올리며 감회에 젖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순조 무자년 창덕궁 연경당에서 펼쳐졌던 진작례 공연은 한국무용사에 있어서 효명세자가 외척세력을 견제하고 왕권강화를 위해 궁중연회를 부흥시키고 창작정재를 활성화하게 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공연입니다.

순조 무자년 순원황후 생신연에 새로 창작된 정재는 춘앵전을 비롯하여 예술적으로 수준 높은 17종의 작품에 달하며, 이러한 궁중정재를 포함한 무자년의 진작례에서는 궁중정재의 고고하고 아름다운 미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현공연은 앞으로 한국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국내를 비롯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수준 높은 궁중정재 문화를 알리는 공연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낌없는 관심 가져주신 문화관광부 김종민 장관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문화재청 유홍준 청장님의 사언에 감사인사 드립니다.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무용원, 연극원의 훌륭한 역량들과 특히 180여년전의 궁중문화를 고려하여 무대를제작 해주신 윤정섭 교수님, 공연을 성황리에 열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신 황지우 총장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공연이 올려지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런 자리가 지속되어 국민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나아가 세계 속 우리의 전통 궁중 문화가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가슴속 깊이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자년 연경당 진작례 재현의 의미

진작례(進爵禮)는 '왕과 왕비에게 술잔을 올리는 의식'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와 왕실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진봉정, 진연, 진찬, 진작 등 다양한 명칭의 궁중 연향이 거행되었다. 그 가운데 진작은 가장 간소한 잔치였다. 잔치를 베풀 때 찬품(음식), 치어(송덕의 글), 작주(술), 악가부(음악·노래·춤) 등 소정의 의식절차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향음(香飮) 위주의 잔치인 곡연(曲宴)과 다르다.

이번에 재현하는 진작례는 1828년(순조 28) 6월 1일 오전 7시에 순조의 비 순원왕후 김씨의 40세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효명세자(후일 익종으로 추존됨)가 연경당에서 베푼 잔치행사이다. 창덕궁 후원에 사가(私第)의 형식으로 지어진 연경당은 효명세자가 순조와 순원왕후를 위해 1827년(순조 27)에 지은 효심이 담긴 건물이다. 양친에게 존호(尊號)와 경례(慶禮)를 올리기 위해 건물 이름도 연경당(演慶堂)이라 하였다. 무자 진작례는 연경당을 건립한 뒤 이루어진 최초의 궁중연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날 진작례에는 순조의 왕실가족 8인과 외빈 4인만이 참석한 조촐한 내연(內宴)으로 이루어졌다. 같은 해 2월 모후의 보령 40세를 기념하여 잔치를 한차례 올린 탓에 생신날을 맞이해서는 왕실 연회의 규모를 매우 간소하게 했던 것이다. 그 대신 효명세자가 손수 만든 예제(禮製) 악장과 17가지의 창작 무용을 펼쳐 보임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경하(慶賀)의 의미를 더하고자 하였다.

진작례 의례절차는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집사자와 왕세자가 자리에 나가는 취위(就位), 왕과 왕비가 자리에 앉는 승좌(陞座) 및 왕세자 사배례(四拜禮), 왕과 왕비께 휘건·음식·꽃·술·치어·무용 등을 올리는 진작(進爵), 왕세자에게 휘건·음식·술·무용 등을 올리는 진작(進爵), 음식을 물리는 퇴어찬(退御膳), 의식을 마치는 예필(禮畢) 등의 절차로 구성된다.

이날 행사에서 흥미로운 점은 내전에서 베푸는 내연(內宴)에 무동(남성무용수)이 정재를 공연하도록 한 점이다. 그전까지만 해도 내연에는 여령(여성무용수), 외연(外宴)에는 무동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효명세자는 내연에 참가하는 여령들을 지방에서 불러들이는 폐단을 막고, 새로운 창작무를 선보이기 위해 무동을 출현시킨 것으로 보인다.

부왕을 도와 약화된 군주권의 회복을 시도했던 효명세자는 대리청정 기간(1827~1830) 동안 4차례의 궁중연향을 베풀었다. 세도가 안동갑씨를 참석시킨 자리에서 국왕의 권위와 왕실의 위엄을 과시해 보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이를 위해 효명세자는 3년 동안 2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궁중 정재의 창작을 주도함으로써, 조선 궁중예술의 꽃이라고 평가되는 정재의 황금시대를 이룩하였다.

특히 보통 여러 잔을 올리는 진작례와 달리 연경당 진작례는 한 잔의 술을 올리면서도 최고의 정성을 다한다는 효명세자의 깊은 효심이 깔린 연회였다. 실제로 규모는 작지만 예절·시·음악·노래·춤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이날의 진작례는 19세기 조선 궁중연향의 최고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재현의 의미가 크다.

이 재현은 연경당 진작례 때 공연된 17가지 정재를 3차년(2006~2007)에 걸쳐 복원을 한다는 계획 아래 추진하는 행사의 일환이다. 2006년 1차로 5가지 정재의 복원행사에 이은 올해의 복원은 여러 가지 여건상 의례의 원형고증에 초점을 맞추되, 6개 정재를 재현한다는 목표로 삼았다. 고증에 따른 재현의 부족한 점은 후일의 보완을 통해 누를 덜까 한다. 조선 궁궐 내 왕실 전용 연행공간이라 할 수 있는 창덕궁 연경당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진작례 재현행사는 조선 왕실의 연향문화와 궁중정재의 정수를 엿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2007년 6월 11일

의례 고증책임 심승구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사 교수, 문화재 전문위원)



정재 소개

경풍도 (慶豊圖)

경풍도는 해마다 풍년이 들어 태평성세가 될 것을 기원하는 뜻에서 그린 그림으로, 풍년이 들어 경사로운 모습을 묘사한 춤이다. 무원(舞員)은 선모(仙母) 1명, 협무(狹舞)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동(舞童) 1인이 현도탁(仙圖卓)에 경풍도(慶豊圖)를 바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춤은 1828년 6월의 연경당 진작례(進爵禮)에서 효명세자 예제(睿製)의 악장을 진상하는 무동정재(舞童呈才)로 처음 선보였다. 무동의 복식은 주취금관을 쓰고, 화금포(花錦袍)·흰색 바탕에 흑색 선을 두른 중단의·남색 바탕에 흑색 선을 두른 치마를 입고, 자사대(紫紗帶)에 보대·무우리를 착용한다. 또 백우호령(白羽護領)과 백우염요(白羽褰腰) 등을 옷 위에 걸쳐 농부를 가장하는 복식을 입는 점이 특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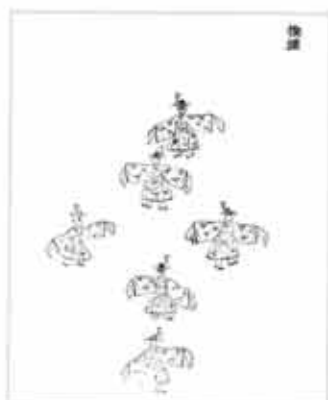
경풍도 (慶豊圖)



백우호령



백우염요



박점무 (撲蝶舞)



녹화화점포

박점무 (撲蝶舞)

박점은 나비가 날개짓 하듯 춤추는 정재이다. 6인이 전대(前隊)·중대(中隊)·후대(後隊)로 둘씩 짝을 지어 춤을 추는데 전대는 두 사람이 앞에 나란히 서고, 중대는 전대와 후대 중간에서 좌우로 갈라 서고, 후대는 뒤에 나란히 선다. 창사(倡師)는 순한시로서 효명세자 예제(睿製)로 되어 있다. 무동의 복식은 아광모(冥光帽)를 쓰고 녹화화점포(綠羅花蝶帽)·백질흑선중단의(白質黑老中單衣)·홍질남선상(紅質藍老裳)에 주전대(珠鉤帶)를 띠고 무우리(無憂履)를 신는다. 겹옷에 범나비를 군데군데 수놓은 점이 특이하다.



영지무 (影池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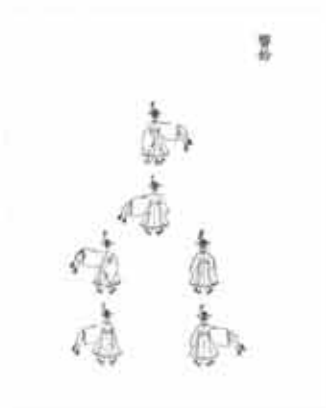
영지

영지무 (影池舞)

영지는 그림자가 비치는 연못이란 의미로 '영지(影池)'라는 네모난 못의 이름을 따서 명칭을 삼은 정재이다. 6명이 영지를 가운데 두고 3명은 영지 앞에 3명은 영지 뒤에 서서, 서로 마주보면서 춘다. 사방 6척 정도의 크기로 네모진 연못같이 만들어놓고 안에 칠을 한다. 물을 넣고 그 둘레는 연꽃 잎사귀를 꽃아 장식한다. 연못 바깥쪽은 초록 채색을 하여 고기와 게(蟹) 모양을 새기고, 연못 가운데에는 나무로 가산(假山)을 만들어놓고, 산봉우리에는 흰 새가 서식하는 것처럼 꾸민다. 무동의 복식은 아평모를 쓰고, 벽라포·백질흑선중단의·홍질남선상을 입고, 학정대(鶴頂帶)에 무우리를 신는다.

향령무 (響鈴舞)

향령무는 방울을 울리며 추는 춤을 의미한다. 6명의 무원이 품(品)자 모양으로 벌려 서서 각각 두 손에 방울을 들고 장단에 따라 방울을 흔들고 뿌리면서 춤을 춘다. 춤은 장단에 따라 방울을 흔드는 춤사위가 주요 내용이며 창사는 1828년 연경당 진작례에서 처음 선보일 때는 없었으나 후에 현종 때 지어졌다. 무동의 복식은 영지무와 대체로 비슷하나 녹라포를 입고 홍한삼을 끼는 점이 다르다.



향령무 (響鈴舞)



향령



정재 소개

첩승무 (疊勝舞)

첩승은 첩첩이 쌓여있는 아름다운 경치라는 의미이며 춤보다 노래에 비중을 두고 있는 춤이다. 6명의 무원이 나아가 제1첩(第一疊) 창사로 시작하여 제10첩(第十疊)에 이르는 동안 그 사이사이에 약간 춤사위를 바꾸어 나간다. 칠언(七言)으로 된 첩승무의 창사는 효명세자의 예제로 되어 있다. 무동 복식은 영지무와 대체로 비슷하나 겹옷으로 홍라포를 입고 남질흑선상에 주전대(珠鉞帶)를 띠고 흑화(黑靴)를 신는 점이 다르다.



첩승무 (疊勝舞)



침향춘 (沉香春)



화병

침향춘 (沉香春)

침향춘은 봄 향기에 흠뻑 젖는다는 의미이다. 두 사람의 대무(對舞)로서, 두 개의 모란화병을 가운데 두고 꽃을 어루만지다가 꽃 한 가지를 꺾어 들고 상대하며 춤을 춘다. 춤사위는 「가인전목단」과 비슷하며, 창사는 「순조무자년 진작의궤」에 수록되어 있다. 무동의 복식은 영지무와 대체로 비슷하나 겹옷으로 녹라포를 입고 주전대를 띠고 흑화를 신는 점이 다르다.

조선 무자년 연경당 진작에 재현행사



금종랑씨 재현안무 박은영

- 중요무형문화재 제40호
한연화대합설무 이수자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연경당진작 (演慶堂進爵)

:: 대전 · 중궁전이 진어하시는 찬안

각색 떡, 조약 · 증병 및 단자 · 양색산삼, 수면, 약과, 다식과, 각색 다식, 양색 강정, 삼색 매화연사과, 각색 엿, 용안 · 여지, 조란 · 울란 · 강란, 배 · 살구, 대추 · 밤, 송백자, 각색 정과 및 삼색 녹두가루 떡, 수정과, 잡탕, 각색 절육, 편육, 양색 지나, 전복 · 지태 볶음, 각색화양적, 꿀, 겨자, 초장, 상화



:: 대전 · 궁전이 진어하시는 소반과

각색 떡, 수면, 다식과 · 만두과, 삼색 다식, 삼색 매화강정, 조란 · 울란 · 강란, 배 · 밤 · 살구, 각색 정과 및 양색 녹두가루 떡, 수정과, 잡탕, 각색 절육, 편육, 해삼전 및 양색 지나, 전복 볶음 및 각색 화양적, 꿀, 겨자, 초장, 상화



:: 대전 · 중궁전에게 올리는 별미

양숙편육

:: 대전 · 중궁전에게 올리는 탕

금중탕

:: 세자궁에게 올리는 찬안

각색 떡, 수면, 약과 · 다식과, 삼색 다식 및 조란 · 울란 · 강란, 양색 매화강정, 배 · 밤 · 살구, 각색 정과 및 양색 녹두가루 떡, 수정과, 잡탕, 각색 절육, 편육, 소밥통전 · 해삼전, 전복 볶음 및 각색 화양적, 꿀, 겨자, 초장, 상화

:: 세자궁에게 올리는 탕

금중탕



궁중음식 고증 한 복 리

- 주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 궁중음식》 기능 보유자 후보
- 현재 사단법인 궁중음식연구원 원장
- 명지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 전공 석·박사
- MBC 드라마 “대장금” 궁중음식 자문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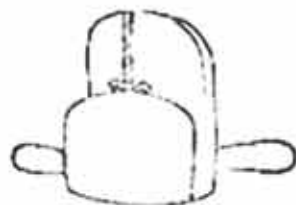
무동복식

관모 (冠帽)

신분이나 의례에 따라 격식을 갖추기 위하여 머리에 쓰는 물건.



주취금관



아광모

포 (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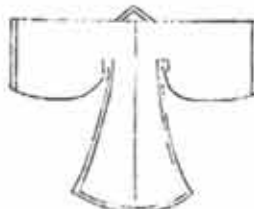
바지·저고리 위에 입는 겹옷. 색상에 따라 녹라포·벽라포·홍라포 등이 있음.



녹라포

중단 (中單)

예복의 속에 입는 홑옷. 연경당 공연 때는 바탕에 검은 색으로 깃·도련·소매 끝에 선을 두른 백질흑선중단을 주로 입음. 단의(鰐衣).



백질흑선중단

상 (裳)

조선시대 때 왕 이하 문무관라들이 예복에 착용하던 치마 형태의 옷. 연경당 공연 때는 남질흑선상과 홍질 남선상을 주로 입음.



남질흑선상

말군 (襪裙)

주로 여자들이 치마 밑에 입던, 뒤가 갈라져 있는 통넓은 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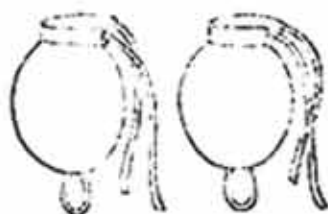
조선시대



삼국시대

띠 (帶)

신분과 계급에 따라 모양이나 색깔을 달리하여 허리에 두르던 띠



행전 (行纏)

바짓가랑이를 좁혀 보행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정강이에 감아 무릎 아래에 매는 물건.



백말 (白襪)

흰 버전. 발을 보호하고 땀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천으로 만들어 신는 물건.



무우리



비두리



오화

신발

장화와 같이 목이 긴 '화(靴)'와 짧은 신을 가리키는 '이(屐)'를 주로 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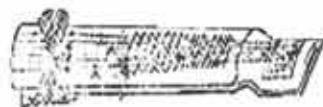
충무회상 노종 그레타리 (이용주)

- 전통복식협회 회장
-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객원교수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의생활학부 겸임교수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겸임교수
- 2006 MBC 창사 45주년 특별기획드라마 '주몽' 제작지원

악기

현금(玄琴)

거문고, 명주실을 안축과 꺾에 얹어 술대로 연주하는 현악기



가야금(伽倻琴)

12줄의 명주실을 안축 위에 얹어 연주하는 현악기



아쟁(牙箏)

활대로 줄을 마찰시켜 소리를 내는 현악기



해금(奚琴)

두 줄 사이에 활대를 끼워 연주하는 악기



대금(大笏)

대나무에 구멍을 뚫어 가로로 잡고 부는 관악기



피리(篳篥)

대나무 관대에 서(리드)를 꽂아 세로로 만든 관악기



방향(方響)

16개의 직사각형 철판으로 된 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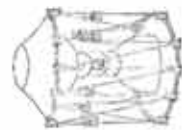
교방고 (敎坊鼓)

양면에 가죽을 댄 북뿔을 틀에 매달아 놓고 연주하는 타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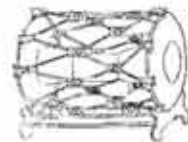
장고 (杖鼓)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단 반주용 타악기



갈고 (羯鼓)

양쪽 마구리를 말가죽으로 댄 장구와 비슷한 타악기



박 (拍)

궁중음악과 무용의 시작 및 끝을 알리는데 사용된 여섯 쪽의 나무판으로 된 타악기



휘 (麾)

음악을 연주할 때 지휘봉처럼 쓰는 기(器)



희죽 (戲竹)

춤을 출 때 무용수의 등뒤장을 인도하는 데 쓰는 의물



음악감독 김 해 숙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 한국 산조학회 회장



출연자 소개 / 세계민족무용연구소 소개 / 수고하신 분들

악사

음악감독 : 김해숙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박 : 신현식
 피리 : 안형모, 박준구, 김문조
 대금 : 윤석만, 김동근
 해금 : 김보미, 김경훈
 장구 : 윤희욱
 좌고 : 박영식(이상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정재

재현인무 : 박은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
 오경아, 강민아, 강민정, 권효진, 김선희,
 김유나, 김예리, 김정은, 성예진, 윤영숙,
 이혜란, 정성희, 현수은 (이상 오경아 무용단)

의례

강가동, 김슬기, 명재환, 신기원, 이도훈, 이영수, 이창수
 (이상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송의진, 김은지, 신예진, 최지나, 김민정, 김지연,
 이은누리, 임준희, 최서영, 김남희, 이현희, 정지현,
 조영아, 지난영 (이상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김지희, 도은석, 이기종, 주지은, 원지영, 진우환, 최여미
 왕 : 이원태 왕비 : 김미애

창사

이준아 (국립국악원 정악연주단, 한국정가단 단장)
 강지은, 박희원, 박선미, 박진희(이상 한국 정가단)

세계민족무용연구소 소개

| 설립취지 및 목적 |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부설 세계민족무용연구소는 국가 문화정책에 기여하고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연구기관이며, 세계 각국의 민족무용연구와 교류를 통해 우리민족무용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발전시켜 학술적 체계를 정립함과 아울러 세계민족무용 공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기관이다.

또한 세계민족무용연구소의 설립은 아시아 전 지역의 민족무용 연구를 활성화시킬 것이며, 민족무용과 관련한 연구와 해외 교류에 있어서 창구의 역할을 할 것이며,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무용연구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 세계 무대에서 중심점이 될 것이다. 특히 이론과 실제의 양면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일반대중과의 거리를 좁혀 삶의 질을 향상함을 설립취지로 한다.

세계민족무용연구소에서는 동아시아 및 세계 각국의 무형문화유산을 계속적으로 무대에 올리는 작업과 우리의 뛰어난 전통예술을 세계무대에 알리는 작업을 통해 우리춤과 다른 민족무용의 비교연구 등 학문적 기반을 다져나가고자 한다.

주요활동

- 세계무형문화재 초청 공연
- 한국 전통무용 국내 해외 공연
- 세계 각국과의 전통문화교류
- 국제 민족무용 심포지엄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수고하신 분들

총기획 : 허영일 (세계민족무용연구소 소장)
 의례고증 및 연출 : 심승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무대미술 : 윤정섭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의상고증 : 이용주 (그레타리 한복연구소 대표)
 궁중음식고증 : 한복려 (궁중음식연구원 원장)
 화장 : 김은수 (만발화 대표)
 의물 및 의상지원 : 한효림 (세계민족무용연구소 연구원)

연구지원 : 김은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진행담당 : 임미희, 최미연, 황희정
 진행 : 박성희, 박혜성, 한석진, 하야로비, 양희나
 공연진행지원 : 서울국제문화교류회, 세계민족무용연구소
 분장 : 윤수영
 사진 : 석인철
 사회 : 장혜승 (극단 어우름 대표)



미래, Touch

손 끝 하나로 움직이는 미래 세상, 금호석유화학이 가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건축자재 등의 합성수지개발로 지구의 미래를 책임져 온 금호석유화학이 꿈의 신소재 탄소나노소재와 첨단 에너지 산업을 통해 인류의 미래도 책임집니다. 초소형 반도체 메모리에서 터치스크린까지,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술로 이제 당신의 미래를 아름답게 꾸밉니다.

당신이 상상하고 우리가 만듭니다



세계민족무용연구소

130-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53번지 224호

Tel.02-746-9347